■ 世界發明史에 記錄된 ■

그것과

쿠키

"그녀의
비법아닌 비법은
실수에서 탄생한
사랑스런 선물…"

쵸컬릿이 촘촘히 박힌 먹음직스런 쿠키. 쿠키의 부드러움 사이에서 간간히 씹히는 달콤한 쵸컬릿의 맛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쿠키는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 그럼 그 달콤한 쿠키를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다음 물음에 대답해보자.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달콤한 쿠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빽빽한 전나무 숲 가운데 작은 눈처럼 박혀있는 차가운 파랑의 호수. 그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이 벽면을 장식하고, 그 밑으로는 하얀 레이스로 덮힌 장식장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다.

동그란 나무 탁자는 빠짐없이 붉은 체크무늬 천으로 덮여있고, 산으로 향해있는 작은 창문들에는 하늘을 닮은 커텐이 바람에 나부꼈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찻잔까지도 그 모든 것들과 완벽하게 어울려 있었다.

주인인 러스웨이크필드 여사가 그러하듯, 그 작은 공간은 모든 사람을 감싸 안을 것같이 포근하고 따뜻했다.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군요. 구수한 냄세가 마을 밖까지 진동하던걸요."

깔끔한 벨벳 모자를 쓴 사나이가 그 공간 안으로 불쑥 들어섰다.

"어머나! 월리엄이로구나. 어쩐 일이야.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서 걱정했었어."

웨이크필드 여사는 작은 손을 마구 흔들며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은 진정한 반가움으로 가득 빛나고 있었다.

"예. 좀 멀리 떠나 있었지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만드시는 쿠키 맛은 잊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 쿠키를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 왔답니다."

사람 좋게 생긴 청년은 넉살 좋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하하하 잊질 않으셨군요.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깊숙히 몸을 기댔다.

그들은 누구인가

"저는 도회지에서도 많은 쵸코칩 쿠키를 먹어보았지만, 모두 아주머니의 이슬방울 쿠키를 따를순 없었어요. 하여간 쿠키는 이 톨하우스의 것이 최고라니까요."

그는 주위를 한번 돌아본뒤 말을 이어나갔다.

"기억나요. 아주머니께서 처음으로 쵸코칩 쿠키를 만드시던 날이요. 아마 그 새로운 쵸코 쿠키는 이슬방울 쿠키의 실패작이었죠?"

청년을 살며시 눈을 감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떠올랐다.

"너… 너무 바쁘군. 챨리에 다과회 시간까지 꼭 마쳐야 하는데… 어쩜 좋아. 쵸컬릿을 녹일 시간도 없네!"

톨하우스의 주인 웨이크필드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븐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늘상 바쁜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했다.

"어떡하지? 익지도 않은 쿠키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초조히 바라보았다. 늘상하던 방법대로 하면 도저히 제 시간에 맞출 수가 없을 것이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곱게 채를 쳐놓은 밀가루와 쵸컬릿을 번갈아 바라 보았다.

쵸컬릿을 녹이고 쿠키마다 일일이 바른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다. 그 작업만 생략해도 제시간안에 일을 충분히 끝마칠것 같았다.

'그래! 아예 밀가루 반죽에다 쵸컬릿을 넣자. 그러면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쵸컬릿이 녹아서 근사하게 되겠지?'

그녀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에 스스로 만족해했다. 약간 편법이긴 했지만, 쿠키의 맛이나 모양에는 별 차이가 없을듯 싶었다.

그녀는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며 반죽을 시작했다. 밀가루를 소금과 함께 곱게 채를 치고, 버터와 쵸컬릿 잘게 썰은 것을 넣어 단숨에 근사한 쿠키 반죽을 만들어 내었다.

'호호호 이제 굽기만하면 된다.'

그녀는 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이제 잠시후면 톨하우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쿠키가 나올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럴수가! 쵸컬릿이 전혀 녹지도 않았잖아."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쿠키 안에서 부드럽게 녹아 보기좋게 퍼졌을 줄 알았던 쵸컬릿이 처음의 모습 그대로 쿠키 안에 총총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의외의 사태에 당황하여 만연하게 서있었다.

"챨리의 집으로 쵸코 쿠키를 가져오셨을 때의 그 표정이란… 정말 잊혀지질 않아요. 새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죠. 꼭 땅으로 꺼져버리실 것 같았어요."

"호호호. 그랬었지. 그땐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

"참 아주머니도… 다들 그 쿠키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쿠키 속에 박힌 쵸컬릿을 얼마나 신기했다구요. 지금 도회지에서 인기여요. 모두들 그것만 먹으려 해요."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쵸코칩 쿠키.

그것은 부지런한 쿠키 아줌마의 애교스런 실수에서 탄생한 사랑스런 선물이다. 〈王〉